

01 교회소식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남·여선교회, 기도제물 헌신예배와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선교 사역의 열매인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 주최 찬양 페스티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사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불같은 기도로 마음을 활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03 기획특집

마음의 활렐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마음의 활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본다.

04 간증

기도와 말씀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기도로써 축복의 길로 인도받은 최미순 집사와 성결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해진 두바이 바시르 바하두르 목사 간증.

만민뉴스

제690호 2015년 6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우리는 온 영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남·여선교회, 기도제물 헌신예배 ‘육과 영’ 주제로 드려

지난 6월 7일 주일 저녁예배 시 ‘남·여선교회, 기도제물 헌신예배’가 있었다. 헌신자 대표 특송 ‘열매2’에 이어 헌신자 전체가 ‘여기는 목자의 성’을 특송해 영광 돌렸다.

감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육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온 영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진리로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온 영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 점검해야 할 분야를 세 가지로 전했다.

“첫째 나를 희생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지, 둘째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제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지, 셋째 모든 일을 배려와 섬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하는지”를 점검해 보며 범사에 영을 택해 나감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당부했다.



이스라엘 크리스탈포럼 주최 ‘찬양 페스티벌’ 개최

한국과 이스라엘을 비롯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핀란드, 아프리카, 라트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가운데, 5월 16일 저녁 6시(현지시간) 이스라엘 하이파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찬양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전역 메시아니즘(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을 비롯, 여러 나라에서 참석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2007년부터 3년간 12차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권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을 통해 영적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매년 우리 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왔다. 올해에는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이 참가했다(왼쪽 위아래 사진).

감동의 찬양과 한국전통무용, 워십, 대형 깃발을 이용한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는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

라트비아에서 참석한 안드레이 목사는 “한국 공연팀의 무대는 최고였습니다. 수준 높고 프로페셔널한 공연을 본 적은 있지만 이처럼 깊은 영성이 담긴 공연은 처음입니다.”

다. 얼마나 사랑과 수고로 이 공연을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한편, 우리 교회 김진홍 장로(GCN 방송국장)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에 대해 전하며,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후원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랑을 전달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베레드 첸 로젠 목사 (52세, 이스라엘 리빙스턴교회)

저는 성도들과 ‘찬양 페스티벌’에 참석했는데, 페스티벌은 다채로운 공연과 은혜의 말씀 등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동됐지요.

그런데 그때 제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적 부흥사인 이재록 박사님이었지요. 2008년 7월, 텔아비브에 위치한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2009년 9월에는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성회를 인도하셨는데, 박사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저희 가족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당시 언니가 임신 중이었고 형부가 원인 모를 에이즈 진단을 받아 온 가족이 매우 놀라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성회가 여러 방송사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됐기에 저희 가족도 형부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인터넷으로 박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형부는 물론 언니와 태아까지 전혀 이상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회 후 사회적으로 위축돼 있던 메시아니즘(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담대함을 얻어 이 같은 찬양 축제와 활발한 사역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흑 백 배, 흑 옥십 배,
흑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18~23)

기를 붙여 넣어 생령 즉 살아 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창 2:7). 그리고 영의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 주셨지요. 결국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영의 지식이 꽉 채워져 영이 곧 마음과 같은 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마음과 영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채워진 영의 지식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비진리와 어둠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비진리가 가득 차게 됐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의 흔적인 생명의 씨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시면 바로 이 생명의 씨가 다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니 비진리는 빠져 나가고 대신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진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지요. 이 상태가 되면 영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영입니다.

그런데 영의 지식도 있지만 비진리, 세속 육의 지식도 있기에 그것을 일컬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그릇이 온전히 영으로 채워지면 굳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이라고 표현해도 되지요.

으로 일굴 능력이 없기에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씨앗이 싹은 트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즉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과 생각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육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직 순종함으로 바로 행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영육 간에 풍성히 맺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3. 영에 속한 마음만 갈 수 있는 천국

사람의 마음 중 비진리의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비진리와 악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비진리의 마음이 아닌 영에 속한 진리의 마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활례를 해야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영의 지식을 채워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비진리를 벗어나고 진리대로 행하는 만큼 10%, 20%, 30%, 40%, 90%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지요.

따라서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으로 자꾸 영을 낳아 마음 안에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고 축복권과 저주권까지 받았습니(창 12:3). 또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습니다(민 12:3).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출 32:19) 므리바에서 백성을 책망하기도 했지만(출 17:2~4),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온유와 사람 편에서 보는 온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의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존심과 자기 의를 다 빼내버린 후에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장차 천국에 거하게 될 완전한 영혼육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활례를 통해 영에 속한 마음을 이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움, 시기, 질투 등 비진리나 육에 속한 마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아름다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육이나 악한 마음, 비진리가 아닌 영 선, 사랑 자체의 마음이 감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천국에는 영과 영혼, 그리고 영혼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를 말하며, 영혼은 주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리키지요. 또한 영혼육은 산체로 들림받은 애녹과 엘리야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천국에 영혼이 아닌 영혼육으로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이 무덤에 장사됐지만 삼일 만에 썩지 아니할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리 없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변형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대로 산 채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영혼육으로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 그들의 육과 결합을 해야 완전한 영혼육이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육이 무덤에 장사되지 않으니 산 채로 썩지 아니할 육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인 영을 가득 채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1. 마음이란?

사람과 짐승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에게에는 영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며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은 사람에게만 있으며 마음은 영과 관련이 있지요. 흑여 짐승 중 개는 주인이 슬퍼하면 따라서 슬퍼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소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혼의 작용과 본능에 의한 것이지요.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나 소 같은 짐승에게도 경험과 체험, 그리고 본능 속에서 나오는 혼의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볼 때 간혹 감정과 마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생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 비유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밭으로 비유하여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육토) 네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길가밭은 길옆에 있는 밭으로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꾸 밟아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 버리지요. 즉 교화에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통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밭은 겉에는 흙이 있으나 속에는 돌이 많은 밭입니다.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흙이 깊지 못하므로 뜨거운 햇볕에 타서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담기는 했으나 마음을 그 말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채 지식적인 믿음으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몇 가지로 살펴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영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길 바란다.

첫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다

주님을 영접해 통회자복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기쁘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많이 한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핍박과 환난이 오면 이내 힘들다 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뚫지 못할 때에도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곤고한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탄식이 클 때는 죄와 싸워 버리는 마음의 할례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이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다

(로마서 7:24).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나라는 것을 깨뜨려감에 있어서 날마다 죽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신속히 돌이켜 항상 기쁨과 감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

둘째, 소망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중에 하나는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닌데 기질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고, 또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다.

조금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암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직 마음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다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보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더 앞서므로 하나님을 오해해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에 더 근신하며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성결돼 가는 만큼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 두려움이 녹아져 결국 사라지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대부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좁이야!’ 하며 진리와 반대로 살아간다면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원인을 찾아 바로 회개하고 돌아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을 때 또는 그로 인해 어떤 징벌을 받거나 보응을 받으면 ‘저 질병은 이런 문제로 오는 건데, 왜 저런 연단을 받을까?’ 하며 나름대로 아는 진리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허물을 알았을 때 어떻게든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또 상대가 허물이 있는데도 그 죄값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남들이 저 사람 저렇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하며 답답해한다. 더욱이 그 상대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는 더 답답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전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그 마음이 시원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어

떨까? 과연 남들에게 그 죄상이 알려져 손가락질 받고 죄값을 치러야 속이 시원할까? 물론 무조건 죄를 덮어 주라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 사람에게 권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는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마 18:15~17).

넷째, 평강과 안온, 안식이 없는 모습이 있다

욥기 3장 26절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한 대로 그 모습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믿음 있는 일꾼이라도 그 얼굴에 평강이 없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온전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진정 맡기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 따라서 평강이 없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니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평강이 없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물욕, 명예욕, 권세욕,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등 이 땅의 미련으로 인해 평강이 없고, 죄의 담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또 기도하지 못하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만큼 죄에서 떠나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충만함이 온다. 이처럼 영혼이 잘 돼야 물질, 가족, 건강 등 어떠한 것에도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마음에 천국이 이뤄질 때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로 애통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안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h3>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h3>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06.14~06.20</p>	<h4>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국 39-45 하나님의 뜻 2 십자가의 도 6-10 믿음의 분량 1-5 창세기 강해 83-87 요한계시록 강해 77 믿음을 축량하시니 16-20 선 축복1 십계명 5-9 	<h4>GCN TV설교</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랑의 힘으로 (이수진 목사) 천연과 같은 말 (이미영 목사) 빛의 열매 (이미경 목사) 착한 행실 (이화선 목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 (신동초 목사) 열 재앙 3 (정구영 목사) 성령의 9가지 열매 5 (김수정 목사) 	<h4>예능 프로그램</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8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6 English 4 즐거운 요리 7 흥겨운 소리 1 모두 드려요 30 옛날 옛적에 7 내 마음의 찬양 13 창조와 과학 10 뷰티풀라이프 1 	<h4>해외성회 프로그램</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연합대성회 1 회상 14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기도로 제 마음이 변화되니 가정에도 축복이 임했어요”

시아머니인 장일레 집사님은 약수터에서 ‘만민뉴스’를 받아 보신 후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시게 됐고, 그 뒤 지병인 기관지염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지요.

저는 당시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동관 성도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술과 담배, 도박을 즐겨하니 그나마 시간이 흐르자 교회에 발길마저 끊었지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줄여서 이사하기 일쑤였고, 저도 직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은 도박을 끊긴 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길에서 쓰러져 잘 때도 있고 업혀 올 때도 있었지요. 그러다보니 남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다반사이니 늘 고달프고 우울했습니다. 점점 제 신앙도 식어졌고, 설교 말씀을 들 때에는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마음을 먹지만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니 행할 힘이 오지 않았지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쉬고 싶었고, 모든 걱정 근심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TV 시청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인데.’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그것을 떨칠만한 힘이 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진행될 때에는 매일 밤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제 기도도 멈추는 등 끈고한 신앙생활이 계속됐습니다.

2013년 12월, 삶이 조금 안정되자 직장생활이 힘겹던



최미순 집사 (52세, 3대대 25교구)

저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교구장님의 심방을 받고 ‘기도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겠다.’고 결단한 후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 뒤 대대교구장님의 심방을 통해 기도의 힘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TV 대신 24시간 선교방송인 GCN 방송(www.gcnetv.org)을 항상 시청하며 간증, 설교 등을 통해 은혜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짜증과 곱지 않은 감정 표현 등이 버려지고 가정은 화평해졌지요.

‘남편과 자녀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고, 기도를 쉬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텐데 ...’ 하는 깨우침과 더불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기도생활을 하니 성령을 통해 하나하나 깨우침을 주셨고 순종해 나가자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구영신예배를 기점으로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술과 담배를 끊었으며, 직장 생활도 성실히 잘하고 있지요. 또한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 당회장님의 진실함이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지난날에 무절제한 생활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힘으로 해결한 일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든든한 가정으로 변화됐지요.

더불어 좋은 장막으로 이전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며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중앙교회와 하나 돼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2013년 11월, 두바이 지역에서 개최된 손수건 집회(행 19:11~12)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처음으로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강사 길태식 목사님(대전만민교회 담임)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지극히 성경적인 순수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사역에 큰 감명을 받았지요. 이후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4년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대형교회 당회장이며 권능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참으로 겸손하게 저희를 섬겨 주셨으며, 축복된 말씀을 제게 전해 주실 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기도로 바닷가의 짚뿔이 단물로 변화된 권능의 현장인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무안단물을 통한 응답과 치료 사례를 보고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귀국 후 저는 파키스탄과 인도 사람들을 중심으

로 중동 선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됐습니다. 제가 성결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며 궁금해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배우고자 당회장님의 다양한 신앙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한편, 함께 사역하는 아내는 이삭 TV를 통해 매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매일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천국 소망이 더해지고 어떻게 성결돼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 주다며 행복해합니다.

앞으로 저는 만민중앙교회와 협력해 보고 배우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민중앙교회와 하나 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한국을 방문한 바시르 바하두르 목사 (60세, 두바이 성령 인터내셔널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37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